

어린이 책꽂이

▲기쁨의 마법상자 1, 2=영국 계관 시인이자 1935년 메리 훈장을 받은 작가 존 베이시필드가 쓴 판타지 문학의 고전. '해리 포터'보다 60여 년이나 앞선 1935년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환상적인 배경이 잘 어우러진 판타지 소설로 마법상자를 통해 시공간을 넘나드는 짜릿한 모험 이야기다. <시공주니어·각권 7천500원>

▲검고소리=국악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는 문숙현씨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오는 거문고의 유래에서 영감을 얻어 쓴 동화다. 주인공 '해울'과 '다루'는 '검고'라는 새로운 악기를 만들고 이를 성공적으로 연주하며, 음악으로 다스려지는 '가우리 나라'가 평화를 이루려는 과정을 그렸다. <푸른솔·9천원>

▲안녕, 상상=아동·청소년문학 작가로 국내에 많이 소개된 중국 작가 차오원쉬엔의 소설집이다. 단편 '야옹자', '열한 번째 붉은 천', '안녕, 상상'과 중편 '흰 사슴을 찾아서'가 수록됐다. 표제작 '안녕, 상상'은 순박한 시골 소년 상상의 가슴 떨리는 첫사랑을 그린 청소년 단편소설이다. <세계절·8천800원>

▲백점만점 공부벌레=엄마가 사랑하는 책벌레를 쓴 동화작가 김현태씨가 초등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준다. 말쑥꾸러기 열공이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화가 다비치, 이육사 등 유명한 7명의 공부벌레를 찾아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지를 터득하는 내용이다. <조선Books·1만원>

▲귀여운 내 엉덩이=아이 좋은 그림책 제19권. 눈과 입, 손과 발, 코와 귀, 등과 배, 그리고 팔과 다리 등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느끼기 쉽지 않은 신체 일부 '엉덩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엉덩이가 우리 일상생활에 주고 있는 도움을 재미난 글과 익살스러운 그림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린북·9천500원>

▲둥글둥글 지구촌 문화유산 이야기=세계 다섯 대륙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 스웨덴은 9학년까지 성적표가 없어 아이들이 성적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는 '부러움' 이야기부터 케냐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쓰는 부족 언어와 학교에서 쓰는 공용어가 다르다는 것 등을 다뤄준다. <풀빛·9천500원>

▲구부형 아저씨, 착한 돈이 뭐예요?=국내 기업 CEO들이 뽑은 최고의 변화경영이론가 구부형씨와 구부형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 류준희, 최정희, 홍승완씨가 돈과 부자, 돈과 행복한 삶에 대해 함께 연구했다. 아이들이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돈을 통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토트북·1만원>

▲추억을 파는 편의점=일본 마이니치 동화상 최우수상 수상작가 무라야마 사키의 장편동화다. 유타가 사는 동네에는 특별한 편의점이 있다. 유타는 이곳에서 눈에 익은 빨간색 수첩을 발견한다. 몇 달 전 여자 친구 미음이 이 수첩을 내맡겼을 때, 유타는 친구를 놀림이 두려워 받지 못했다. <주니어중앙·9천원>

조선 최고의 이야기꾼을 꿈꾼 사내

꾼: 이야기 하나로 ...

이화경 지음



광주 출신 작가 이화경(46·사진)씨가 '꾼: 이야기 하나로' 세상을 회롱한 조선의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다소 긴 부제의 역사소설을 썼다. 2006년 '나비를 태우는 강'에 이은 자신의 두 번째 장편소설.

이번 소설은 이야기꾼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자유를 얻고, 사랑을 얻고자 했던 조선의 한 사내 김혹(소설속 주인공)의 뜨겁고도 아름다운 시절에 관한 이야기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 하나로 신분과 경계를 뛰어넘어 조선 팔도를 제 세상으로 취해 보려던, 그래서 조선의 이야기 왕이 되고자 꿈꾼 한 인간의 본질적 욕망에 관한 장편 서사라 할 수 있겠다.

소설의 배경은 조선 정조 때. 문체반정(文體反正)의 칼바람 속에서 소설체는 잠복체로 비호되고, 박지원의 '열하일기'까지 패관소품(裨官小

品)으로 규정되던 무렵이다.

작가는 많은 '이야기'가 유행하면서도 동시에 이야기의 가치가 한없이 경시되던 당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문체반정의 희생자였던 조선 문인 이옥(李錫 1760~1813)을 모델로 한 이결과 이결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꾼 김혹을 통해 근원적인 이야기 욕망을 파헤치고 있다.

성균관 계집종의 아비 없는 아들로 태어나, 성균관에서 잔신부름을 하며 성장한 김혹은 바랄 수 없는 신분의 귀천에서 해방되어 조선 팔도에서, 세상 밖에서 자유롭고자, 흰 손을 가진 남자들이 주인공인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강한 힘이 되어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을 해치지 못하는 새가 되리라는 꿈을 지니고 험악한 어머니 곁을 떠난다.

김혹은 길 위에서 만난 여러 인생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으며 길 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상에 팔며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다.

이야기 하나로 신분·경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욕망을 속 시원히 들여다 본다



별별 이야기들을 쓰고 난 뒤에야 알았다. 별별 짓거리 다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걸. 별별 추한 꼴이든, 별별 아름다운 꼴이든, 다 봐야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도 살아서, 왜냐고? 그것이 삶이니까. 아무리 병통이어도 그게 삶이니까"라고 쓰고 있다.

소설가 구효서씨는 이씨의 이번 소설을 두고 "이 시대 최고 이야기꾼이 탄생했다. 뒤늦게 발견한 한국 문학의 축복"이라고 호평했다.

1997년 '세계의 문학'에 '동근잎나팔꽃'을 발표하며 등단한 이 씨는 십 년 넘게 몇몇 대학에서 강의하고, 인도로 건너가 캘커타 대학 언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패션 책으로는 '수화', '나비를 태우는 강', '그림자 개', '조지아오키트 그리고 스티글리츠', '울지마라, 눈물내 몸은 녹일 것이니' 등이 있다.

<문학에디션 불·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보물섬'에서 제국주의를 본다

문학으로 역사 읽기 ...

주경철 지음



'대항해 시대', '문명과 바다' 등 역사 교양서로 유명한 서울대 서양사학과 주경철 교수가 이번에는 문학과 역사를 한 데 묶은 책 '문학으로 역사 읽기, 역사로 문학 읽기'를 펴냈다.

문학 작품 속에는 각 시대를 상징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고, 주인공들의 인생 역사, 한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점에서 '문학'을 통한 역사 읽기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저자는 스티븐슨의 '보물섬'을 통해 제국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의 성장사를 들여다 보고, 이슬의 '이슬 우화'에서는 그 동안의 교훈적 시각에서 벗어나 그리스 시대의 한 단면을 노예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킬 베른의 '해저 2만리',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항', 버로스의 '타잔'을 등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문학작품에 숨어 있는 역사적 배경을 찾아 들려준다.

그밖에 프리모 베리의 '이것이 인간인가', 브레히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 위화의 '허삼관 매형기' 등을 통해서도 고독스런 역사가 인간 정신에 어떻게 투영되어 작품으로 나타났는지 조망해준다.

<세계절·1만3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에스파냐-잉카 '피의 충돌'

잉카 최후의 날

김 매리 지음



산꼭대기에 건설된 도시 마추픽추로 알려진 잉카 제국 흥망사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소재 중 하나다.

장장 4천km, 1천만명이 넘는 인구를 거느리던 대제국 잉카가 완전히 몰락한 이유에 대한 의문은 끊임 없게 제기돼 왔다.

'잉카 최후의 날'은 잉카 문명과 관련한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류학자 김 매리가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써 내려간 역사 참고서로 어떤 소설보다 흥미롭다.

책은 부와 명예를 찾아 신세계로 떠난 에스파냐와 태양의 제국 잉카의 충돌이 만들어낸 피의 역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각종 사료를 통해 사실상 잉카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전투로, 1532년 11월 16일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168명의 스페인 군대가 8만명의 잉카군을 물리친 카차마르카 전투를 생생히 재현한다.

이어 잉카인이 저항을 시작하며 9개월간 싸웠지만 결국 철수하고 만 쿠스코 전투, 스페인 세 개 부대를 섬멸하며 잉카의 영웅으로 떠오른 키소 유관기 장군의 등장, 발카바를 중심으로 36년간 펼쳐졌던 게릴라전, 그리고 잉카 최후의 저항까지 묘사하고 있다.

<육당·3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의 섬 45곳 여행 안내서

행복한 섬여행

박상건 지음



완도 출신으로 시인이자 (사)섬문화연구소 소장인 박상건(49)씨가 언제 떠나도 좋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45곳을 엄선해 소개한 여행 안내서 '주말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섬여행'을 냈다.

아름다운 섬 45곳에는 강화도, 선재도와 측도, 석모도, 팔미도, 청산도, 돌산도 등이 선정됐다.

책에는 자신이 여행지에서 직접 찍은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는 생동감 넘치는 사진들과 섬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 그리고 저자가 섬에서 경험한 소박한 일화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저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감동뿐만 아니라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충실했다.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해수욕이나 낚시, 산행과 걷기여행 등을 즐기기에 좋은 정도를 별점으로 표시해 섬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버스나 택시 이용은 물론 배편과 자가용 이용 시의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섬 내에 있는 숙박 시설과 먹을거리 정보, 개별 체험 코스 소개, 낚시와 전망 포인트, 여행의 주의점 등 섬여행을 계획할 때 꼭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챙겼다.

<타치아트·1만7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랜드3 공인중개사학원
http://kwangju.land3.co.kr
전국 최다 합격생 배출한 그학원 LAND3
2010년도 100% 합격보장!!
개강 1월 4일 국비환급 100%
동영상 무료 전과목(연회원)
교재무료 ▶오답 노트 제공
기본서 6권 제공
동영상 강의만(6과목) (가입시 부터 ~2010.8.31~ 290,000원)
민개공 3인방
박홍전 교수(개론)
강근호 교수(민법)
고상철 교수(공법)
LAND3 529-8838
합격의 새로운 이념

그 명성, 그대로, 탐과 열정과 합력의 명예가 함께합니다.
2010년 시험 합격률을 위한 최선의 선택!
9급 공무원 강좌
2010년 공무원 정원 4,600여명 증원,
2011년까지 세무직 1472명 증원,
2013년까지 소방직 8000여명 증원 예정
"이제 대세(大勢)는 '무등고시학원'입니다"
【정규종합반, 야간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일반행정직/사무직 지용병학 대개강 1월 4일(월)
출판직/관세직 9급교육행정직
2010대비공개설명회 : 12월 9일 / 12월 26일 15:00 본원 201 강당
당일 공개설명회 참석 후 등록시 공과목과 교재 무료제공
10급 기능직 특채 및 일반직 전환 대비
2010년 전직, 승진시험 및 10급 기능직 특채 대비
박찬걸, 임강석 교수팀, 연중상설 강의 개설
각 과목별 8주완성
야간반, 주말반 동시 개강
개강 및 공개 설명회 1월 9일(토) 14:00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위치 광주중부경찰서 뒤 ☎(062)222-4560

경찰교육의 명문 김재규경찰학원의 합격프로젝트
오직 김재규경찰학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상부터 취직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숙식(one-stop) 프로그램과
이론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실시하여 단기간 합격률 도와주는
회원제 프로그램의 환상적인 조화.
수험생 여러분에게 더 이상 좋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경찰공부를 시작해보세요.
합격의 영광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한번 등록으로 합격할 때까지!
합격회원제 | 1년회원제 | 6개월회원제
이론종합반 | 문제풀이반
KPA 광주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 062)236-3112 | 전남여고 후문 앞

제3종 (자동차 대인·대물) 손해사정사
농산물 품질 관리사
펀드투자상담사
개강 1월 9일 *국비지원·고용보험환급
*농산물시험일 평일반 (2010년 5월9일) 주말반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상담문의 361-8110
농성동 서구청앞 광주은행 2층